

몽골, 무엇을 Make Change 할 것인가



정순훈(서울무악RC)
3650지구 한몽친선위원장
2011~ 몽골 후레대학교 총장
2007.05 제3대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
2006.12~2011 제5대 배재대학교 총장
2005.10 아시아대학총장포럼 초대 의장

2011년 3월 10일 오후 11시 인생 제2막을 보내려고 찾아간 몽골은 공항부터 을씨년스러웠다. 3월인데도 날씨는 영하 20도 정도로 싸늘했고 가로등은 거의 보이지 않아 거리가 캄캄했다. 도로는 포장도 되지 않아 밤인데도 먼지가 펄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중 나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숙소로 도착해서 몽골의 첫날밤을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기대와 아직 닥치진 않았으나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각오를 하면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찾아간 일터는 이름이 대학이지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의 중학교 같았다. 캠퍼스에는 3동의 작은 건물들이 있었고 운동장에는 먼지와 쓰레기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건물 내에도 형광등이 흐릿하고 그나마 불이 들어오는 것은 몇 개 없고 거의 고장이 나서 어두컴컴했다.

마음의 준비는 하였지만 어제까지 한국의 배재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일하느라 몽골어를 익히지 못해서 몽골 교수들과의 대화는 통역을 통해 하였으나 교수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조교도 하기 어려운 25살 정도 된 나이에 학과장을 하고 있었고 한국교수들이 10여명 있었으나 모두 처음 만나는 분들이라 낯설었고 모두 피곤해 보였다.

전기가 수시로 나가 중국산 형광등과 한국에서 얻어 온 내용 연수가 지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수도물도 보름씩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잦았다. 사무실 바깥은 산위 달동네에서 땀 유연탄에서 나온 연기로 자욱해서 5미터 앞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였고 냄새도 꽤 쾌해서 숨쉬기에도 불쾌했다. 과연 전 세계 수도 중 멕시코시티 다음으로 가장 공해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했다.

엮힌 데 덮친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다. 몽골인 입학담당처장은 입시

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5, 6, 7월을 총장의 만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시골로 휴가를 가버렸다. 식당의 직원들은 월급을 타면 월급이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아 한국인 교수들이 급히 나서서 밥을 해냈다. 입학원에서 접수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붙이라는 말을 수십 번을 해도 담당직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약속을 하면 어떤 때는 모든 분들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은 늦거나 몇 사람만 나오는데 귀찮아서인지 대부분 휴대폰은 꺼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안달이냐는 것이다.

옆자리 직원이 아무리 바빠도 도와주면 안 되는 것이 직업윤리였다. 법으로 청소원이 일하는 면적을 정하는데 한국에서는 한사람이 일하는 정도를 몽골에서는 여섯 사람이 할 정도였다. 운동장에 잔디를 심기위해 흙을 트럭으로 싣고 오는데 가능하면 흙이 필요한 곳으로부터 먼 곳에 흙을 내려놓고 네 사람이 조그만 보자기 귀통이를 들고 두 세 삼 정도의 흙을 운반하는데 출근해서 몇 번 퇴근할 때쯤 몇 번 날라서 한국이면 하루면 끝날 일을 세 달에 걸쳐 하면서도 마냥 즐거워했다.

전임 총장이 장학금 주어 한국유학까지 보내 교수로 임용했는데도 고마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한 시간 전에 학생들과 상의해서 학생회실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협의했는데 벌써 교육부에서 전화가 와서 왜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느냐고 연락이 왔다.

정말 다른 세상이었다. 사람들은 매우 순진했다. 신의 성실 감사 사랑 희망 자기설계 효율 이런 것은 없는 것이 정상이었다. 통치가 최고의 목표였고 이를 위해 교육, 우민교육, 고발, 중앙설계가 동원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